



OVERWATCH

덤피스트



가면

MICHAEL  
CHU

RYAN  
BENJAMIN

ANTHONY  
WASHINGTON



OVERWATCH®

툼 피 스트

가면

**MICHAEL CHU** 글

**CATHY PARK** 번역

**RYAN BENJAMIN** 그림

**ANTHONY WASHINGTON** 배경 보조

**JIHYE SOPHIA HONG** 식자

**ALLISON MONAHAN** 전임 교열 편집자

**CATE GARY** 선임 편집자

**ROBERT SIMPSON** 퍼블리싱 수석 편집자

**RYAN BENJAMIN** 표지

**JOHN J. HILL** 그래픽 디자이너

**MICHAEL CHU** 크리에이티브 자문

**JEFF KAPLAN**

**ARNOLD TSANG**

**BILL PETRAS**

**VALERIE WATROUS**

**SEAN COPELAND** 세계관 자문

**CHRISTI KUGLER**

**JUSTIN PARKER**

**DEREK DUKE** 프로듀서

**ADAM GERSHOWITZ**

**CAROLINE HERNÁNDEZ**

**BRIANNE M LOFTIS**

**JOEL TRAUBEL**

**RYAN THOMPSON**

**JEFFREY WONG**

**BYRON PARNELL** 글로벌 라이선싱 선임 매니저

**RALPH SANCHEZ** 크리에이티브 개발 디렉터

**DOUG A. GREGORY** 도움 주신 분

GET OTHER GREAT BLIZZARD PRODUCTS AT [GEAR.BLIZZARD.COM](http://GEAR.BLIZZARD.COM)



OVERWATCH #13 ©2017 BLIZZARD ENTERTAINMENT, INC. 모든 권리는 BLIZZARD ENTERTAINMENT, INC.에게 있습니다.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OVERWATCH는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코리야왕





"카티야 볼스카야를  
처리해야 했는데 실패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지?"

"비알리 생각이다. 볼스카야가 꽤나  
고집이 센 인물이라, 탈론에서 불만을  
품은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지."

그래서  
볼스카야가 우리에게  
유용한 거다. 갈등을  
계속해서 빚을 테니까.

볼스카야는  
살아있는 편이 쓸모  
있다. 항상 그랬듯이.

"숨브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단독 행동을 하느라 바쁘더군.  
자기가 꽤나 영리한 줄 아는 모양인데,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다."

"야망 좀 가지는 건 나쁘지 않지.  
누군가 몬다타를 살해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라크루아."

"런던에는 긴장감이 들끓고  
있지. 옴닉의 반란 이후 이렇게  
분위기가 나빴던 적은 없었다."

"그때야말로 절호의  
기회였는데. 오버워치 놈들이  
끼어들 줄 누가 알았겠나."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오버워치 데이터베이스  
일부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이미 명단에서 몇 명을 지웠지."

모리슨과  
아마리 말인가?

아니,  
아직이다.

옛정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

그렇리까.

다음에 자세히 얘기하지.  
우선, 막시밀리안과 얘기를  
좀 해야겠다.

자금이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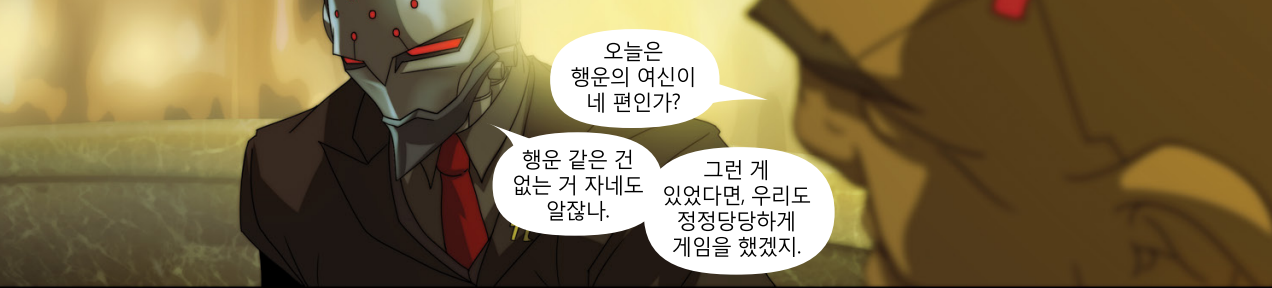
정세를  
파악해야겠어...

... 새 옷도  
필요하고.









오늘은  
행운의 여신이  
네 편인가?

행운 같은 건  
없는 거 자네도  
알잖나.

그런 게  
있었다면, 우리도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했겠지.



좋아  
보이는걸.

놀란  
모양이군.

VOULEZ-VOUS  
LANCER LES DÉS,  
MADAME?

MERCI.

감옥은  
힘든 곳이잖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난 굉장히  
신중하지.

아무렴.



그나저나, 자네와  
연락이 끊긴 동안에도  
일은 계획대로 잘  
흘러갔다네.

인간과 옴닉  
간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됐지...

LES JEUX  
SONT FAITS, RIEN  
NE VA PLUS.



... 여기 있는 네  
친구의 적잖은 활약  
덕분에 말이야.

MES  
COMPLIMENTS.

TOUT LE  
PLAISIR EST  
POUR MOI.



S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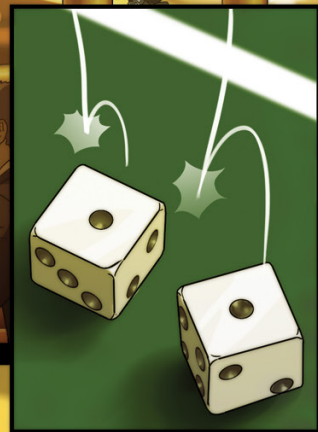


우리 조직에는  
자네가 돌아온 걸 꽤  
반기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우려하는 자들도 있네...

... 자네가 돈줄을  
막아 버릴까봐  
걱정하고 있지.

그런 녀석들은  
내가 처리하지.  
본분을 일깨워  
줘야겠군.













목표물 제거.



숨브라?



APAGANDO  
LAS LUCES.









그렇겠지.



하지만 네가  
길 자린 없을 거다.



누구였지?

네가 신경 쓸  
필요 없는 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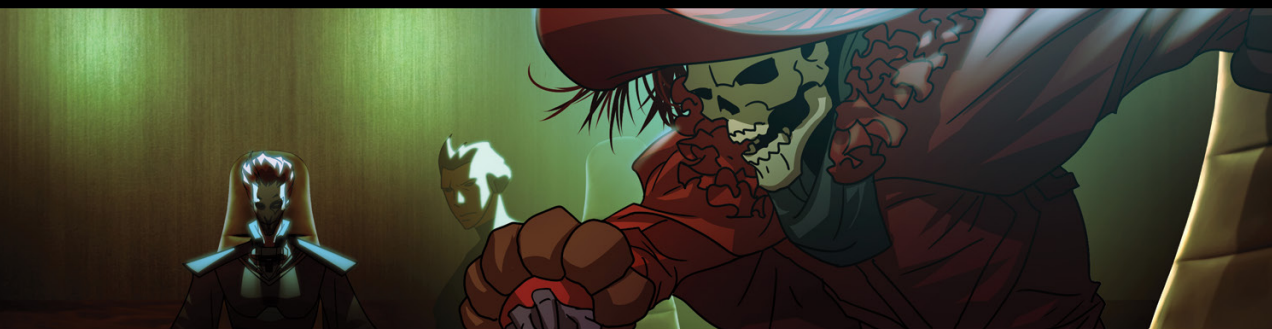
나머지도  
모두  
처리했다.



좋다.  
들어가자.







전쟁을 벌일  
시간이다.